

‘원칙과 방법 찾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지난 3월 18일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3층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문화예술위원회를 준비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문예진흥원 양호석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100여 명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크게 3부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의 발제에 이은 토론자들의 각론이 펼쳐졌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 방현석 교수(중앙대/소설가/기초예술연대 정책위원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제 발제에 앞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배경 하에 탄생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의의와 당면과제, 문제점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한 김갑수 과장(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은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법령에 대해 전문성에 의한 자율성, 개방성과 책임성 등의 원칙이 적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관, 기관과 현장간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치를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과 구조에 대해 토론한

제3부 ‘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심의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 김영수 대표(극단 신화/한국연극협회 이사)는 위원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원과 함께 전문적인 행정과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소위원회의 역할은 위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가 사무처와 협조하여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위원회의 대원칙과 세부적인 정책 실행에 관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위원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인과 기자 등 포럼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각 발제가 끝난 후 발제에 대한 열띤 토론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고민해 오던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논쟁하였습니다.

더 나은 예술상을 만들기 위한 지상 토론

2005 올해의 예술상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우리원은 지난 3월 25일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05 올해의 예술상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05 올해의 예술상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에 첫 시행된 ‘올해의 예술상’은 문화예술계의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권위 있는 문화예술상 제도로 자리매김하였고, 또한 수상작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올해의 예술축제』를 통해 전 국민적 기초 예술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 참여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선정방법이나 축제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이 노출되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2005년도 올해의 예술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절차의 마무리 단계로서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이흥재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7개 장르별 발제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야 발제자로는 이광호(문학/서울예술대 교수), 윤진섭(미술/호남대 교수), 안치운(연극/호서대 교수), 성기숙(무용/무용평론가), 전정임(음악/충남대 교수), 윤종강(전통예술/국악평론가), 강현(독립예술/대중문화평론가) 씨가 발제하였습니다.



국제무대로 나가자!

2006년 네델란드 라이크스아카데미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 안내

우리원은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젊은 미술작가를 국제 무대에 진출시키고자 다양한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독일 베타니언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이어 새롭게 준비된 이번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의 라이크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실험적인 성향의 현대작가들에게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작품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참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참여작가들을 다양한 통로로 유럽의 미술계에 소개하는 국제적인 명성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입니다.

만 40세 이하의 현대미술 분야 작가로서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작가면 지원 가능하며(단 학부 재학생은 제외),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라이크스아카데미 인터넷(www.fijksakademie.nl/application/application.php)에서 신청하고, 포트폴리오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인터넷상 마감일이 2005. 2. 1일로 되어 있으나 우리원과의 약정으로 4월 8일까지로 연장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국제교류팀(02)760-4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안내

우리원에서는 다양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2005년 하반기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할 작가들의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현지 프로그램에 2005년 참가가 확정된 사람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하며, 단순 연수나 워크숍 및 해외대학의 강습, 연수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kcaf.or.kr) 하시기 바랍니다.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홈페이지 개통

우리원 예술정보관은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 (http://oralhistory.kcaf.or.kr)' 홈페이지를 새롭게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우리원은 지난 2003년도부터 원로 예술인의 삶과 예술 체험을 당시들의 직접적인 구술을 통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동사업 제1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한 원로예술인 33인의 구술채록 결과물입니다. 제1차년도 사업은 1927년 이전에 출생한 예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술인 1인당 평균 5회(10시간) 분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술채록에 참여해 주신 원로예술인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우리 현대사의 여러 굴곡과 갈등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도 자신의 예술세계를 곳곳이 지켜낸 분들이기에, 이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 현대사이고 예술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증언에는 그 동안 사회적·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금기시되거나 감춰졌던 진실이 담겨 있으며, 전통 연희 동작에 대한 연기 재현, 예술계 동료들에 대한 회고 등을 함께 담고 있어 기존의 문헌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시 예술계의 풍경을 재구성하는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우리원은 원고지 4만 5천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녹취문, 구술채록 당시의 육성과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두 공개하며, 해당 원로 예술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목록과 관련 참고자료들도 충방량하여 함께 제공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연구방법론인 구술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여러 가지 학습정보들도 함께 갈무리하여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모든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료를 우리원 예술정보관(서초동 예술의전

